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VS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 美대선 오늘부터 사전투표...TV토론·트럼프 선고 맞물려 주목

11월 미국 대선을 두 달가량 앞두고 6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미국에서 우편투표를 비롯한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미국 대선이 초박빙 대결로 전개되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치러진 2020년 대선을 계기로 미국에서 사전투표가 급증했고, 이번에 사전투표가 본격 전개되는 시기에 표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이벤트가 맞물려 있어 이번 사전투표는 대선 승패를 결정하는 데 중대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표적으로 오는 10일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후보 TV토론이 계획돼 있고, 18일에는 '성 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선고가 기다리고 있다.

전미 주(州)의회협의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47개 주(州), 워싱턴DC, 괌과 푸에르토리코 등 자치령에서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투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50개 주 가운데 앨라배마, 미시시피, 뉴햄프셔 등 3곳은 자격 요건을 갖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부재자 투표만 진행하고 있다.

사전 투표는 우편이나 투표소 투표

펜실베이니아는 토론 후 16일부터 개시...다른주도 9-10월 2020년 대선 당시 69% 사전투표...이번에도 중대변수 될 듯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투·개표 일정이나 유효 투표 기준 등 세부 방식은 주(州)별로 상이하다.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는 북부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6일 제일 먼저 시작된다. 이어 켄터키-펜실베이니아(16일), 미네소타·뉴욕(20일) 등 주별로 순차적으로 우편 투표에 들어간다.

펜실베이니아는 우편투표와 함께 투표소 사전투표도 16일부터 가장 먼저

시작한다.

미국 대선에서의 사전투표는 2012년 33%, 2016년 40%를 기록하다 코로나19 때인 2020년 대선 때 69%로 폭증했다.

미국의 이런 사전투표 추세는 상당수의 유권자가 이번에도 대선전에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미국 대선의 승패를 결정하는 경합주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경합주 승패 자체가 사전투표가 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점에서 경합주의 사전투표 일정이 중대한 이벤트와 맞물린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당장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10일 북부의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첫 TV토론을 한다.

지난 6월말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에서 참패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대선 후보직까지 내놓았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은 지난 7월 등판한 해리스 부통령이 상승 모멘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 관측이 많다.

나아가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형량 선고도 대선 막판 판세에 큰 영향을 주면서 사전투표 표심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경합주 가운데 펜실베이니아주는 TV토론이 진행된 후 6일 뒤인 16일부터 우편 및 현장 사전투표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우편투표를 시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는 다음 달 17일부터 현장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등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미시간, 위스콘신 등 다른 경합주도 9-10월 사전투표를 시작한다.

/연합뉴스

## 中 “미남·미녀 외국 간첩의 로맨스 함정 조심”

학생들에 “무수한 위장술 지녀...성별마저 바꿀 수 있어” 경고

중국과 서방 국가들이 상대방의 간첩 활동을 적발하며 비난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이 ‘미남·미녀 외국인 스파이를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는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을 통해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잘생긴 남자’나 ‘아름다운 여자’가 외국 세력의 간첩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국가안전부는 “외국 간첩들은 무수한 위장술을 지녔고 심지어 성별마저 바꿀 수 있다”며 14억 중국 시민이 국가

에 대한 위협에 맞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외국 정보기관들이 중국 학생들을 유혹하기 위해 ‘로맨스 함정’을 이용하면서 “외국 간첩들은 채용 광고와 심지어 온라인 만남을 활용해 민감한 과학 연구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젊은 학생들을 꾀어 기밀 정보를 넘기도록 강요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들은 ‘잘생긴 남자’나 ‘아름다운 여자’로 위장해 젊은 학생들을 ‘로맨스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며 간첩들이 대학 학자, 과학 연구원이나 컨설턴트로 위장해 돈에 쫓달린 학생

들을 표적으로 삼아 침투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유럽 각국이 중국 스파이 경제력을 강화하는 데 대한 ‘맞불성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 지난 5월 독일 연방검찰은 유럽 의회 의원 보좌관의 중국 스파이 혐의와 관련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크라 의원의 보좌관 지안 귀는 유럽의회 내부정보를 중국 정보기관에 넘기고 독일 내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한 혐의로 지난 4월 체포됐다.

또 지난 3일에는 미국 뉴욕주 주지사의 전 비서실 차장이 ‘중국 정부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미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 러 스파이 의심받던 흰돌고래 ‘발디미르’...“충격 받아 숨졌다”

“발견 당시 사인 밝힐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주장도

‘러시아 스파이’로 의심받다 죽은 채 발견된 흰돌고래(벨루가·사진) ‘발디미르’가 충격을 받아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현지시간) 언론보도에 따르면 발디미르 추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물 권리 단체인 ‘노아 앤드 원 웨일’은 발디미르 사체를 확인한 결과, 여러 곳에서 총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노아 앤드 원 웨일은 범죄 행위에 의한 죽음을 배제할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이라면서 범죄 행위가 의심되는 만큼 경찰이 신속히 수사에 나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추적 단체로 지난달 31일 노르웨이 남서쪽 리사비카 앞바다에서 발디미르의 사체를 처음 발견한 ‘마린 마인드’는 발견 당시 사인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밝혔다.

발디미르의 사체는 지난 2일 부검을 위해 노르웨이 수의연구소로 옮겨졌으며 부검 결과 보고서는 3주 뒤에 발표될 예정이다. 15-20살로 추정되는 발디미르는 지난 2019년 봄에 노르웨이 북부 핀마르크 지역에서 처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엑스레이를 끼울 수 있는 홀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장비’로 표시된 띠를 부착하고 있었기에 러시아 해군의 스파이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발디미르는 지



난 5년간 노르웨이와 스웨덴 해안에서 자주 목격됐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였고 수신호에 반응하는 등 사람 손을 탄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마린 마인드는 전했다.

마린 마인드는 페이스북에 “지난 5년간 발디미르는 수만명에게 감동을 줬고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여줬다”며 “발디미르는 절대로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 실내스크린파크골프장

18홀~36홀/전국유명파크골프장 실전

- 파크골프장 실전라운딩(1~4인)
- 입문반(1:1지도)

1. 파크골프기초교실·라운딩연습교실	매일/9시~
2. 파크골프지도자1,2급자격증 취득반	수시접수

- 무더위쉼터 실내파크골프장 운영 / 오전9시~저녁10시
- 파크골프용품·용구 전시장 완비!

화정새마을금고4층 | 010-9163-789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